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创建大韩民国临时政府

1919년 4월 11일 한국, 중국, 일본, 및 미국 등 각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상해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루에 위치한 임시사무소에서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지도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항주로 이동하기까지 상해를 근거지로 13년간 활동하였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

1919년 4월 11日, 来自朝鲜国内、中国东北、日本、美洲等地的代表在上海法租界金神父路的临时办公楼召开临时议政院会议，成立了大韩民国临时政府。

大韩民国临时政府是韩国历史上第一个民族共和政府，作为抗日独立运动的主要领导机构发挥了重要的作用。1932年转移至杭州前，大韩民国临时政府一直以上海为大本营，前后活动了13年，是后来大韩民国政府成立的根源。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초기의 모습
初期大韩民国临时政府在上海



임시정부의 통합을 이룬 제6회 임시의정원 의원(1919. 9)
统一临时政府的第六次临时议政院议员纪念照 (1919. 9)



관람시간 参观时间	매일 (09시 ~ 16시 30분) 每日 (09 : 00~16 : 30)
안내전화 电话	+86-571-8706-4301
팩스 传真	+86-571-8706-4309
주소 地址	항주시 장생로 55호(호변촌 23호) 杭州市长生路55号 (湖边村23号)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의 기획 및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本册制作由韩国演员宋慧乔与诚信女子大学教授徐炯德共同策划·赞助。



대한민국임시정부100년

항주유적지기념관 杭州旧址纪念馆

1932. 5 ~ 1935. 11

항주시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杭州时期大韩民国临时政府的活动

한국 독립운동은 세계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 한국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 나아가서는 전 중국과 구소련 원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절강, 상해 지역에서도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독립투쟁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줄곧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당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유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독립투쟁을 진행하였다.

韩国独立运动在世界民族解放运动史上具有重要地位。二十世纪初叶，朝鲜半岛、中国东北乃至全国、前苏联远东地区以及世界各地的抗日烽火遍地燃烧，浙沪大地也活跃着一群韩国志士抗日复国的斗争身影。韩国临时政府自1919年4月11日在上海成立之日起，就一直在中国从事反日复国独立运动，期间得到当时中国政府和人民的有力援助，进行着并肩战斗。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 의거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절강으로 이동하였으며 항주, 가흥, 해염 등 각 지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항일투쟁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 김구 선생과 그의 동지들은 절강 주민들의 도움으로 일제의 추적을 벗어나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갔으며, 마침내 가흥 남호회의를 열어 혁명의 전환점을 맞이함으로써 임시정부를 구하였고 항일 역량을 보존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반파시즘 진영속의 한갈래 대오로 성장하였다.

1932년 4월 29日, 上海虹口公园爆炸事件后，韩国临时政府转移浙江，辗转在杭州、嘉兴、海盐等地进行着最为艰难的抗日斗争。韩国独立运动领导人金九和他的同志们，在浙江人民的保护下躲过了日寇的追捕，能在绝境中获得重生并坚持抗日。终于，召开了南湖会议迎来了革命的转折点，挽救了临时政府，保存了抗日力量，在世界反法西斯阵营中成长为世所瞩目的一支队伍。

형세의 발전과 투쟁의 수요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 각 지역을 전전하다가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하였다. 역사적으로 <역경의 이동시기>라 불리는 8년 중 1932년 5월 ~ 1935년 11월까지 절강시기는 임시정부가 침체상태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로서 한국독립운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随着形势的发展和斗争的需要，后来韩国临时政府辗转镇江、长沙、广州、柳州、綦江等地，最后于1940年到达重庆。1937年11月，临时政府从南京、镇江出发到长沙之前的长达五年的浙江时期是韩国独立运动走出低潮，转入重振复兴阶段的转折期，在韩国独立运动史中占据着重要位置。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 경로

大韩民国临时政府迁徙图路线图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항주를 거쳐 중국의 여러 지역 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중경에서 광복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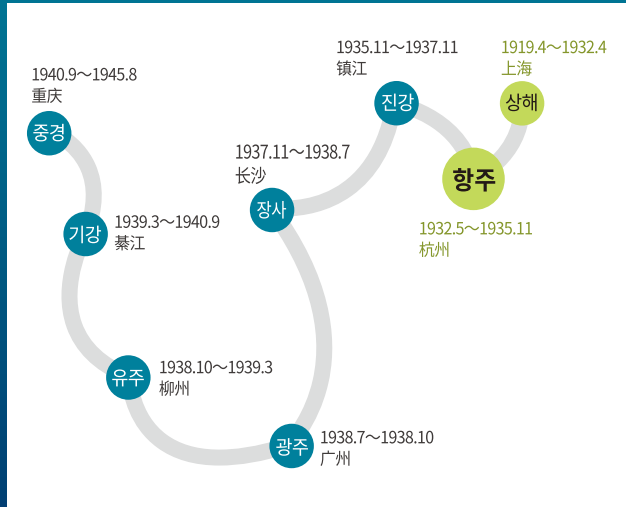
尹奉吉义举后, 大韩民国临时政府离开了根据地上海, 经杭州、长沙、广州、綦江等地, 于1940年到达重庆。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의 홍구공원
尹奉吉义举之后的虹口公园



의거 직전 수류탄과 권총을 들고 태극기 앞에 서있는 윤봉길 의사
尹奉吉义举之前手持手榴弹和手枪在太极旗前留念



항주에 새 터를 마련하다

临时政府在杭州

1932년 5월 상해를 떠나 항주에 도착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무위원인 김철이 거주하던 청태 제 2여관(군영호텔) 32호를 임시정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후 1933년 항주 장생로 55호(호변촌23호)에 청사를 마련하고 1934년 11월 까지 사용하였다.

1932年5月, 大韩民国临时政府离开上海到杭州后, 在临时政府国务委员金澈居住的清泰第二旅社32号(群英饭店)召开国务会议, 并把这里作为临时政府办公室。1933年1月, 临时政府办公室搬迁到杭州湖边村23号直至1934年11月。



청태 제 2여관(군영호텔) 清泰第二旅社(群英饭店)



장생로 55호(호변촌 23호) 长生路湖边村23号



한국독립당 본부가 있었던 사옹방 입구
韩国独立党本部的思翁坊入口

항주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杭州时期大韩民国临时政府的活动

항주에 이전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5월 15~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위원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임시정부를 재정비하였으며 외교와 재정, 군사 등 독립운동 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3년 5월 김구와 장개석의 회담을 통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으며, 일본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1934년 4월에 《재무부행서 규정》을 의결하고 재미동포들이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 재정기반 확충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활동은 국외 거주 한국인들에게 민족정신과 항일 의식을 일깨워주었다.

大韩民国临时政府迁徒到杭州后, 于1932年5月15日~16日在杭州召开国务会议。会议重新调整国务委员的工作分工并明确了各自职责, 在外交、财政、军事等各个方面充分地履行了独立运动最高机关的作用。1933年5月, 金九和蒋介石举行会谈, 临时政府开始得到中国国民政府的支持, 加强联合东亚地区的抗日势力。同时, 临时政府为改善薄弱的财政状况, 于1934年4月作出了《财务部行署规定》, 将从在美韩侨处所募集的资金用来补充独立运动财政资金。临时政府坚持履行政府和议会的职责, 唤醒了旅居国外韩侨们的民族精神和抗日斗志。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머물던 시기에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57호 (1934. 4. 15)
临时政府在杭州避难时期发行的《大韩民国临时政府公报》第57号 (1934.4.15.)



김구와 장개석의 회견(한국 백범기념관 소장) 金九和蒋介石的会见(油画在韩国白凡纪念馆收藏)

김구와대한민국임시정부를 도운 절강인들

帮助金九和临时政府的浙江人民



저보성 褚輔成

신해혁명의 원로이고 절강성 정부주석, 상해항일구국회 회장, 상해법학원장으로 지냈던 저보성은 개인과 가족들의 생명위험을 무릅쓰고 김구와임시정부 요인및 그 가족들을 자신의 고향인 가흥으로 긴급히 피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辛亥革命元老、曾任浙江省政府主席、上海抗日救援会会长、上海法学院院长的褚辅成冒着个人和家人的生命危险, 掩护金九和其它几位临时政府要员及其家属从上海紧急转移到他的家乡嘉兴避难。

진동생 陳桐生

저보성의 양자 저봉장과 함께 김구가 가흥에서 안전하게 일경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운하가에 자리잡은 자기집에 안전하게 피신시켰다.

陳桐生, 号和均, 褚辅成寄子。与褚风章等一起, 具体负责金九在嘉兴避难时的安全和生活。



저봉장 褚鳳章

저봉장은 아버지 저보성의 지시를 받고 가흥으로 피신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 및 가족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褚风章受父之托, 精心安排金九及临时政府要员和家属在嘉兴避难期间的生活和安全保障。

주가에 朱佳蕊

1932년 7월 시아버지 저보성의 지시에 따라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며 김구를 남북호 재청별장으로 피신시켰고, 김구는 이곳에서 반년간 머물렀다.

1932年7月, 在公公褚辅成的紧急指示下, 不顾辛劳与酷暑, 将金九带到南北湖的载青别墅避难, 金九在此生活半年。



주애보 朱愛寶

주애보는 1933년 여름 가흥에서 광동인 장진구로 위장한 김구를 인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낮에는 하루 종일 배를 타고 운하를 몰며 일제의 추격을 따돌렸다.

1933年夏, 朱爱宝与化名为“张震球”的金九扮成夫妇, 每日乘船往返于运河中, 保护金九摆脱日本宪兵的追捕。